

“감독·각본상 가능성 충분...작품상은 힘들듯”

“봉준호 감독 역량, 세계에서 인정 최소 2개·많게는 4개 부문상 예상 보수적...작품상은 자국영화 관측”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트로피를 거머쥘까. 사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바커행에서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감독상을 받고 미소 짓는 봉 감독의 모습. 캘리포니아(미국) | AP·뉴시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3일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이제 실제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동아가 평론가 등 5인의 영화전문가에게 작품·감독·각본·미술·편집·국제영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국제영화상(이전 외국어영화상)을 포함해 최소 2개, 많게는 4개 부문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적 시선과 평가에 기대가 섞인 관측이다.

●“감독상, 기대해볼 만...작품상은?”

전찬일 평론가는 국제영화상은 물론 “감독상과 미술상, 편집상” 수상을 기대했다. “이야기가 지닌 보편성, 언어와는 무관한 연출 역량”으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정수완 교수와 김선엽 영화평론가도 감독상을 내다봤다. 정 교수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은 물론 세계 영화의 흐름을 주도해온 유럽과 미국에서 다수의 수상을 한 것도

이미 감독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평론가는 “현실 문제의 정곡을 찌르면서도 유머각각을 잊지 않는, 인간과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비영어권 영화인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수상하는 등 다양성을 향한 흐름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해온 할리우드의 시선 안에서 작품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아카데미상의 성격, 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아

카데미와 수상작(자) 선정에 참여하는 대다수 할리우드 회원들의 보수적 취향과 색깔 등을 장벽으로 꼽았다. “작품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전찬일)라는 점, “다양성을 추구해온 흐름이 있지만 작품상만은 자국 영화에게 안길 것”(김선엽)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실제로 올해에는 배우상 부문 후보에 유색인종이 거의 없고, 감독상 후보에 여성이 들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여전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아카데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리어터와

인디와이어 등 현지 매체는 “다양성을 잃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각본상·미술상·편집상 가능성도”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는 “풍자코미디와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등 장르를 넘나들며 예측이 어려운 이야기를 전개해 끝내 묵직한 울림을 안긴 메시지”가 각본상(봉준호·한진원)의 가능성을 밝힌다고 말했다.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아카데미상의 색깔과 관례에 비춰 감독상을 주지 않는다면 각본상만으로도 큰 의미다”고 기대했다.

미술상이나 편집상을 노려볼 만하다는 시선도 나왔다. 전찬일 평론가는 “뛰어난 플롯의 이야기를 받친, 흠 잡을 데 없는 이음새와 세트”의 힘을 들었다. 김 프로그래머는 “요소요소에서 섬세하게 스토리를 반추준 정재일 음악감독의 작품”으로서 음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후보 선정은 한국영화의 힘을 과시한 것이라는 데 이견을 내지 않았다. 정수완 교수는 이번 아카데미상 단편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영화 전체의 발전 상황이 안긴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많이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

아카데미상 단편다큐 후보 쾌거 “세월호 사건 알리는게 목적이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직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작품을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하고 싶고요.”

한국 다큐멘터리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의 이승준 감독(49)의 바람이다. 14일 오후 전화통화로 만난 이

승준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이고 미국 중심인데, 후보까지 되니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29분 분량의 '부재의 기억'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그날 '우리가 믿은 국가는 어디에?'라고 묻는다. 출발은 2016년 '춧불정국'으로 뜨겁던 때이다. 이 감독은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필드 오브 비전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제안 받았다. '뉴스 형식이 아닌 영화로 접근하자'는 제작진에게 감독은 “춧불정국이 어떻게 세월호와 연관됐는지부터 설명했



이승준 감독

다”고 돌아왔다. “미국 제작진도 외신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접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렇고, 그걸 알려야 할 필요성이 컸죠.”

촬영을 진행할 무렵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가 드러났다. 이 감독은 “실존하는 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세월호를 다룬다는 의미는 더욱 달랐다”며 “겉으로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유가족)분들도 마음에 다들 묻어주 게 있었다”고 했다.

이승준 감독은 '달팽이의 별'로 2011년 한국 다큐영화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부문 대상을 수상해 주목받았

다. 이후 '달에 부는 바람', '그림자 꽃'으로 활동을 이었다. '부재의 기억'은 2018년 뉴욕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아 아카데미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했지만, 5편으로 압축하는 최종 후보 진입은 감독조차 예상치 못했다. 그는 “생중계로 후보 발표 장면을 보다가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깜짝 놀랐다”며 웃었다.

이승준 감독은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영화를 몇 차례 더 상영한 뒤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다.

“국내 상영 때 한 유가족이 '이 영화를 많은 곳으로 갖고 나가 많이 알려 달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부재의 기억'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으니, 많이 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아카데미상 선정 과정은?

아카데미 회원 8400여명 31일부터 6일간 1인 1표

아카데미상 수상작(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될까.

아카데미상은 영화계 각 부문별 관계자들이 모인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한다. 이 단체의 8400여 회원들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 LA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한 영화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투표를 진행해 후보작(자)을 정한다. 각자 5편에 표를 던져 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 작품이 많은 순으로 최종 후보를 올린다. 작품상 후보 선정에는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

후보작(자)은 회원들의 각 부문별 1인 1표 방식을 거친다. 올해는 3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2월5일까지 투표 과정을 밟는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영화가 해당 부문상 수상작(자)이 된다. 다만 '기생충'이 포함된 국제영화상과 다큐멘터리상은 5편의 후보작을 모두 본 회원들만 투표할 수 있다. 수상 결과는 2월10일 시상식에서 베일을 벗는다.

한편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는 임권택·박찬욱·이창동·홍상수·봉준호 감독 등과 최민식·송강호·이병헌·하정우·배두나·조진웅 등 배우들, 조상경 의상감독, 이병우 음악감독, 류성희 미술감독, 오정완 영화사 보 대표 등 40여명의 한국영화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위촉돼 있다. 이해리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명품 골프 기모폴집업/ 반집업니트/ 초특가 파격 세일!! 2점 49,800원

품격있는 골프니트로 최고의 활동성 자랑!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디자인에 반하고, 따뜻함에 또 한번 반하게 될 전천후 니트. 폴리에스터100% 안감기모로 내추럴한 디자인에 안감 기모가 더해져 실용적이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디테일로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 신축성과 활동성이 높아 착용감이 좋으며, 탄탄한 조직감의 소재로 제작. 오랫동안 착용해도 변형이 없다. 소매부분 정평한 시보리 제작.

디테일을 살리다

실한을, 정교한 디테일, 구조적 형태를 위해 노력했다. 지루하지 않은 워트있는 센스와 소매의 트임, 딱 떨어지는 어깨선, 입체감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 겨울 골프웨어 느낌의 스포티한 기능성, 실용성을 결합하여 세련미 넘치는 룩을 지향한다.

사이즈 95, 100, 105
판매가 2점 428,000원 - 49,8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492,000원 - 74,7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톤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